

광주시, 간선도로망 대폭 확충...교통불편 해소한다

올 추진 사업 6건 모두 국비 확보...시민 이동권 편의 기대

광주시가 시민의 이동권 편의 확대 등을 위해 간선도로망을 대폭 확충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하는 도로망 확충사업은 혼합도로 3건, 산단진입도로 2건, 연구개발특구지원 1건 등 총 6건(신규사업 2건)이다. 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비를 모두 확보했다.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이 마무리되면, 출퇴근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에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역도로사업은 보상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올해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1건을 신규 추진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각자 구간별 설계를 착수하고 노선확정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으로 광주 광산구 진곡과 하남산단 인근에 있는 장수교차로-임곡동 황룡강 구간-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양저수지 상무평화공원까지 15.4km에 이르는 기존 2차로가 4차로로 확장된다. 노선은 일부 조정된다.

시는 또 혼합도로 개선사업으로 올해 '상무지구-첨단산단', '월전동-무진로', '북부순환도로', '용두-담양' 등 4건의 계속사업을 이어간다. 이 사업도 국비가 50% 지원된다.

'상무지구-첨단산단' 사업은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유덕동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하남대로 구간과 교량가설을 위한 가물막이 공사가 한창인 영산강대교 구간을 우선 추진한다. 상무지구 시청사 뒤편 첨단 보훈병원간 4.98km를 잇는 4-6차선 도로가 신설되면 빛고을대로의 교통량이 분산돼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첨단지역에서 상무지구 도심까지 자전거도로도 신설돼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등도 가능하게 된다.

'월전동-무진로' 사업은 공항 앞 동송정지하차도의 철도관련 협의가 진전을 보이기에 따라 공항역 앞 지하차도 구조물 설치 등이 조만간 공사에 들어간다. 광산구 월전동 송정2교-공항-U대회아파트-우산동 상무교차로까지 6.25km 구간이 4차로로 신설 및 확장되면, 혼합한 광주송정역 구간과 선운지구 구간을 거쳐지 않고도 나주방면 국도 13호선으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북부순환도로' 사업은 올해 1공구 일

광주시 주요 도로망 확충 사업

- ▲신규사업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첨단3지구 진입도로 착수
- ▲혼합도로 개선
상무지구~첨단산단, 월전동~무진로, 용두~담양
- ▲첨단 연구개발특구 접근성 개선
노후 용두교 철거 제거설

곡교차로에서 한세봉을 거쳐 용두동 빛고을대로까지 3.22km 구간의 보안설계를 모두 마무리하고 연내 공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용두중학교-지산초교-용전교차로까지 3.1km를 4차로로 확장하는 '용두-담양' 사업은 보상과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올해 모두 확보함에 따라 잔여 구간 확장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말 착공 예정인 북부순환도로 1공구와 함께 용두교차로를 중심으로 격자형 간선도로망이 형성되면 양산, 본촌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산단진입도로사업은 신규사업 1건과 계속사업 2건이 진행된다.

계속사업은 광산구 평동3차산단과 남구 에너지밸리산단을 잇는 6.4km 구간으로, 올 상반기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

신규사업인 '첨단 3지구 진입도로'는 지난해 말 국토부 신규산단 진입도로 타당성평가를 통과하면서 사업비 453억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했다.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간다.

연구개발특구 지원사업은 '광주R&D특구 연결도로' 1건으로 북구 용두동의 기존 노후한 용두교를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교량가설이 완료돼 임시 개통한 바 있으며, 조만간 부대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한다.

백남인 광주시 교통건설과장은 "주요 간선도로 확충사업 마무리되면 교통 정체 완화와 도로 주행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우체국 노동자 과로사 예방대책 촉구 20일 오전 광주시 서구 유촌동 전남지방우정청 앞에서 전남지방우정청노조 관계자들이 우체국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소방, 화재현장 도착시간 2년 연속 단축

평균 7분 51초...6초 앞당겨

전남소방본부 화재현장 도착시간을 2년 연속 앞당겼다

전남소방본부는 20일 "지난해 2472건의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에서 현장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7분 51초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남소방본부가 목표로 잡은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을 59.1%로 집계했다. 이는 지난 2019년 평균 7분 57초보다 6초 단축된 것이다. 7분 내 도착률은 57.1%로 전년 대비 2%p 향상됐다.

화재현장 출동은 신고접수에서 시작해 출동지령, 차고 탈출, 현장출동, 화재현장 도착순으로 이뤄진다.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선 소방관서 신설을

통한 평균 출동 거리 단축을 비롯해 신속한 신고접수 및 출동지령 시스템 구축, 반복된 훈련을 통한 출동시간 단축 등 시설 투자와 훈련이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남소방본부는 지난해 소방관서 5개소(소방서1, 안전센터3, 지역대1)를 신설해 평균 출동 거리를 감소시키고, 전국 최초 출동지령 스마트 표출시스템을 구축했다. 소방차 길 터주기 등 훈련에도 막대한 투자를 쏟았다.

마재은 전남소방본부장은 "전남도는 전국에서 3번째로 평균 출동 거리가 멀고 도서 및 농촌이 많은 지역 여건상 출동이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소방관서 신설 및 반복된 훈련을 통해 화재현장 도착 소요 시간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평동산단 페플라스틱 공장 안전 조치 위반 다수 확인

광주 평동산단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광주일보 1월 12일 6면)와 관련, 노동당국이 사업장 내 안전 조치 위반 현황을 다수 확인했다.

20일 광주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노동청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페플라스틱 공장 사망사고 원인 조사와 감독을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실시했다.

감독결과 이 사업장에서는 체인벨트 방호장치 미설치 등 법 위반사항 18건, 안전검사 미수검 1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 등 9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법 위반사항은 사법조치하고,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장비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안전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1865만원을 부과했다.

추가로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발생 사업장과 유사한 폐합성 수지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해 패트롤 점검·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동일 유사업종에 대해 지도·점검·감독을 실시해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 징역 1년 선고

음주운전을 하고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18분 동안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3차례의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서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아파트 입구 오른쪽 화단 연석을 충격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였다. 아파트 안 도로 통행을 막은 채로 정차해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대 13년 연속 등록금 동결

코로나 따른 학비 부담 최소화

순천대학교가 202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순천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학부생 등록금은 학기당 인문사회계열 165만 3000원, 자연계열 199만 8000원, 공학계열 216만 3000원으로 책정됐다. 순천대는 2009학년도 이

후 13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2012학년도부터 4년간 등록금을 인하했고, 2018학년도부터는 학부 신입생의 입학금도 폐지했다.

고영진 순천대 총장은 "대학 재정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했다"며 "경상적 경비 절감과 정부 재정지원사업 확충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등 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